전체여학생대표자대회
자료집

< 글 나오는 순서 >

1.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2. 여학생회 사업평가 및
   기구개편이 제기되는 배경
3. 1차 설문지 총학 보고
4. 총여학생회 2학기 사업보고

이국전북대학교 제 10 대 이제동무 자주 총여학생회

<글 하나>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1년사업이 이제는 지나온 시간보다는 지나갈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사업이지만 더욱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우들을 만날 때이다.

작년 12월에 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우리는 1년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가슴 설레여 했던가? 그렇게 한학기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어느덧 2학기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학기! 다른 곳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 사업을 벌이는 이 시기에 여학생회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학우를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간에 그렇게도 말많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결론짓지 못했던 여학생회 위상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으려 한다. 우리는 기간에 여학생회가 학생회와 따로 구별되어 존재하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여학생들만의 조직을 따로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체계 내에서 알맞은 자리를 차지할때 더욱 힘있게 여학생들의 힘을 다질 수 있고, 여학우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2. 여성! 여학생운동!!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나오는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풀어가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냄으로서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처지에서 반일 운동은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운동은 직접 처해있는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운동은 자신이 직접나서는 것이다. 바로 자신이 주인으로 된다. 이말을 요약하면 "삶이 곧 운동이다"는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은 실로 많은 억눌림을 받고 있다. **우리같은 여대생에게 직접적인 취업에서부터 일상생활, 가정생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가까이는 학내에서도 여자로서 부당하게 받아야만 하는 많은 일이 우리를 당황케 한다.**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음담패설이 그렇고, 학내를 조금만 늦은 시간이면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 학점에서 여학생들이 소외당하는 현실이 그렇고, 취직에서도 역시 그렇다.(이번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사장이 대학 출신의 여사원 50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신문기사가 당연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기까지 한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 여대생들은 일단은 공부가 본분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 다니길 원한다. 대학 졸업장에 어울리는 그런 직장. 실상은 여대생이 진출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다양하지도 않고, 그나마 아쉬운대로 있는 직장마저도 병역 필한 남성에게 더 많은 유리함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와 같은 여대생들에게 말한다. 사회에 진출만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자신이 남성보다 뛰어나기만 하면 제반 사회차별의 벽을 가뿐하게 뛰어 넘을 수 있다고 하며 우리에게 슈퍼우먼이 되라 한다.** 마치 후남이처럼 말이다.

집에서 애만 보고 빨래 외에는 할일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우리 엄마들 같은 여성들이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다. 누가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을, 모성보호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를 무시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 여대생들은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여성에의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의식 자체를 깨쳐야

만 한다. 이를 어려운 말로 우리는 "여성해방운동"이라하고 "여학생운동"이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여서 했을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 어려운 말로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여학생운동은 여성으로서 부당함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가 하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나오는 이해와 요구를 집단적으로 풀어가는 조직적인 활동. 이것이 바로 여학생운동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학생운동이 어느정도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여학생운동을 두엇을 가지고 벌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학생이 전개하여야할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말한다.

1) 성차별의 불평등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지배층(외설에 가까운 성문화를 확산시킨 미제국주의와 그와 공리공생하는 지배자들)에게 여성의 힘으로 사회의 부조리들을 하나하나 변혁해내는 활동을 전개한다.
실례로, 김부남씨와 같이 9살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력 당한 후,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복수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 여성에게 벌을 가해야 할까? 김보은 김진관 사건, 윤금이씨 사건, 일제 강제종군위안부들이 있다.

2) 학원내의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구조를 깨버리고 학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활동을 전개한다. 여학우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제반 사업이 있겠다.

3) 모든 운동의 주체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학생이 주인인 여학생운동에 여학생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여학생들의 말문을 공개화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해의 오숙희씨 강연(여성의 일곱가지 컴플렉스), 올해의 "성교육 순회 간담회", 손숙씨 강연, 정신대 문제 판굿 '소리없는 만가', 달달이 제작된 "어깨동무"신문 등이 그것이다. 이모든 것들은 여학생들의 힘을 커다랗게 조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 둘〉

여학생회 사업평가 및 기구개편이 제기되는 배경

1. 들어가며

이제는 기간의 여학생회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었고, 그 사업들의 평가를 놓고 그 속에서 제기되는 여학생회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껏 진행되었던 여학생회 사업이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봅시다. 고학번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애국전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총여학생회 출범식을 치루어 왔습니다.(올해는 제외하고) 과연 간부여러분께서는 총여학생회 출범식에 참여하여 그 해 1년간 지속될 애국전대 여성운동에 대하여 공유하는 자리에 참여하렸습니까? 쉽게 "예"라고 답하진 못할 것입니다. 우선 간부인 나부터 참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학우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는, 참여하더라도 거의가 여학우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범식은 학우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사업을 하는 자치기구인 학생회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년 사업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리이며, 학우들과 공유하는 자리이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이 스스로 만든 학생회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총여학생회는 출범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우들의 요구라기보다는 학생회가 지니는 요구에서 진행된 사업에 다름 아닙니다.

또 이런 사업도 합니다. 1) 올해 윤금이씨와 같은 전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여성문제를 학우들에게 여론의 형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전하였고(기간에는 김부남씨사건이나 김보은, 김진관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의 유해성과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2) 여성문제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여성학교, 여학생 대동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여학우들의 권익을 보장, 개선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원내의 여성차별 인식을 깨쳐내고 여학우들이 당당한 학원의 주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기간의 여학생회 사업을 알았으니까 더 잘 얘기해 봅시다. **기존의 여학생회 사업은 말그대로 학생회로서 가져야 할 사업(출범식, 대동제)과 여성문제를 보다 더 많은 학우들과 공유해 내는 사업(여성학교)를 공존시켜 왔습니다. 참으로 벅찬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성문제의 교육사업이 소홀시 되면서 간부가 여성문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여학우들의 인권복지 사업에 바빴던 것입니다.**

올해는 과연 어떻습니까? **올해 총여학생회는 사업의 방대함을 과감히 축소하고 학우들이 요구하는 본래의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시켜 진행하였습니다.** 출범식을 없애고 대신에 **대중강연(손 숙씨 초청)**을 하면서 좀더 많은 여학우들의 요구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성교육의 필요성은 항시 요구됩니다. **"성교육 순회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깨동무"신문발간**의 횟수를 달달이 내는 것으로 늘려 사업했습니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의 요구를 **"소리없는 만가"** 속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의 **인권 복지** 영역은 손대지 않고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인권복지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도 여성문제 인식의 기회를 학우들과 함께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차 설문지에서도 많은 학우들의 지지와 참여를 받았던 **"탁아사업"**은 여성문제를 학우들과 쉽고도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여학생회의 사업 중에서도 남여 학우를 망라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올해의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방향에서부터 여학생회의 올바른 체계변화를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는 시기로 잡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총여학생회라는 이름만이 존재할 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운동의 교육사업이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기구개편 후의 사업을 미리 진행하여 보고 그에 적절치 못한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들을 올바르게 잡아나가**

는데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애국전대의 많은 학우들로부터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며, 이제 여학생회에서 해야할 일(사업)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났던 기간의 여학생회의 불합리한 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학생회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학생회 기구개편이 제기되는 것으로는 첫째, 일만육천을 포괄하는 총학생회(=각 단대 학생회)로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마치 여학생회가 학생회로의 단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듯이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학생회사업의 효율성에서 두 가지의 독자적인 체계를 온존시킴으로서 불합리 했던 점들을 말하고자한것입니다. 남,여학우들을 포괄하는 학생회로의 단결만이 올바른 여성문제의 해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학생회 기구개편이 제기되는 것으로 둘째, 올바른 여성운동의 발전과 실천적인 힘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익히 알고있듯이 여성운동은 전체운동에 속하는 부문운동입니다. 여성문제는 결국에는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체운동 속의 한 부문입니다. 이사회의 정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올바른 여성해방 또한 요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여 여성운동을 책임지는 단위는 전체운동을 이끌고 나아가는 학생회체계에서 좀더 알맞은 자리를 차지하였을 때만이 여성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여학생회 기구개편이 제기되 는 것으로 셋째, 여학생회 간부들의 사업추진의 한계로부터 제기됩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여학생회는 학생회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까지 일해왔습니다. 학생회의 역할과 여성운동의 역할은 동시에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회는 학생회로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하여 활동해야하며, 여성운동은 그나름의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역할 수행은 학생회라는 체계에서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요구에는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학우들의 요구 속에 여성문제의 해결요구가 있다하여 그것이 학생회로 존재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미 일만육천을 포괄하는 자치조직인 총학생회(또는 단대 학생회)가 이러한 여학우들의 요구를 수렴,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따로이 존재하여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학생회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학생회기구개편에 대해 많은 여학우들이 축소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의 총여학생회 사업을 접해본 학우라면은 여성문제 교육사업의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것이고 10대의 사업방식이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학생들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운동을 전개할, 그 만큼의 크기면 됩니다. 여성운동 이외의 것들은 이미 학생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축소라기보다는 사업을 강화시키는데 더욱 효율적인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성문제의 교육사업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여학생회에서 담당해왔던 여학우들의 인권복지나 편익을 위한 부분은 충분히 학생회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 고유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학생회로 있을때와 기구개편이 된 후의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올해의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가 기간에는 여학우들의 인권복지에 밀려 미약했다면 이제는 교육사업이 강화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연구와 고민으로 여학우들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이 활발해 질것입니다. 구체적으로보면 '어깨동무'라는 기간의 총여학생회 신문이 발간될 때 총학생회 기관지인 '이세종광장'의 고정란에 확보되어 남,여학우가 함께 읽는 여성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기구개편이 되고나서의 사업들은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속에 단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사업은 강화되어 대중적인 교육행사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전문화되면서 여성운동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학생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여학생회 기구개편은 제기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학생회내의 알맞은 여학생회 체계로는 집행부나 위원회가 적

절합니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와 단대의 체계가 어떤 그림이어야 하는가는 학생총회에서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기구개편되는 단대여학생회의 상은 집행부를 권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구개편될 총여학생회는 위원회가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운동의 발전 수준에서 볼때 단대보다는 총여학생회가 가지는 사업의 역량면이나 사업의 축적정도에서 요구됩니다. 단대가 기간에 학우들과 함께했던 사업의 토대를 정비하여 내년정도에 총여학생회가 기구개편되는 것이 학우들의 요구에 가까이 근접한다 하겠습니다.

제 10대 총여학생회 ==========

하반기 사업 계획서

가을 바람이 약간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입니다.
새봄이라고 하면서 총여학생회 사업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다짐했던 시간들이 어느새 냉철한 평가와 새로운 결실을 다지는 시기로 변화하였습니다.
1학기 여학생회 사업을 자랑하기에는 많은 미숙함이 있었고, 때로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발견하고서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한 평가의 내용들을 계승하고 변화시켜서 더 나은 여학생 기구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단대에 갔더니 이런 구호가 있더군요. "고민하지 않는 간부는 학우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학생회 사업의 성과를 남기고 좀더 나은 기구로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간부, 항상 학우들과 함께 사고하고 그 내용들을 더 깊게 연구하고 학우들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간부들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모습의 학우들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고민하는 간부로 서기 위해 노력합시다.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2학기에도 한시의 늦춤없이 생활하고 고민하는 애국 전대 여학생회 간부들과의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사업,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용들을 학우들에게 전달하여 육천의 학우들이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데 든든한 벗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는 또한 각 단위 간부님들의 변함없는 활발한 활동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1. 총여학생회 2학기 주요 방향

(1) 상반기 사업을 계승한다.

--> 사업에 임하는 간부의 헌신성과, 대중교육, 교양 사업을 총화하고 마무리 합니다.

(2) 올바른 여학생회 위상을 정립한다.

--> 현재 진행되는 기구개편 사업에 대해 학들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여학생 기구가 확고하게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요 핵심 사업

① 기구개편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맞게 간부를 준비하고 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대중교육, 교양 사업에 집중하고 1년 교양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가져옵니다.
③ 2학기에도 탁아사업에 박차를 가합시다.
후원인과 자원활동가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계속적 연대의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2. 중어학생회 2학기 구체적 사업 일정과 그 내용

(1) 기구개편 사업

① 상반기 6월 1차 설문조사에 이어 좀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현재 기구개편을 준비하면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간부들만의 논의로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학우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애국 전대 여학우들의 바른 의견들을 모아 더 확고하게 강화된 여학생 기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겠습니다.

② **순회간담회**를 가집니다. 간부들만의 논의가 아닌 여학우들의 공유와 인식통일이 있는 기구개편이 더욱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과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순회 간담회는, 인문대, 사범대, 사회대가 진행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여학생 기구 건설에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힘차게 조직합시다.

③ **전체 학생 대표자 대회(9.7)**를 통해 각 과 대표님들까지, 여학생회 기구개편에 관한 인식을 같이하는 자리로 만듭니다.

④ **전체 여학생 대표자 대회(9.9)**에서는 각 과 여학생 대표님들과 함께 개편사업에 대한 공유 작업을 시작으로 학우들을 만나갑니다. 비록 많은 고민과 실천이 부족 하지만, 올바른 여학생 기구의 정착을 위함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전체 학생총회(9.16)**에서 전체 여학우들이 직접 기구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여학생 기구의 상(像)을 논의하게 됩니다.

(2) 탁아사업

① 빈민 연대의 관점을 확고하게 잡아나갑니다.
단순한 후원 사업과 자원활동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빈민 연대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벌입니다.

② 학우들을 더 힘있게 묶읍시다.
각 단대 탁아 책임 주체와 각 과 탁아 대표의 연계를 더 활발하게 이루어내어 탁아 활동을 하는 학우들의 활동모습과 그들의 변화를 성과로 남겨야겠습니다.

③ 간부들의 결의와 열의를 강화시킵니다.
탁아사업은 유독 그저 학우들의 실천활동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2학기 탁아사업은 간부들의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합시다.

④ 9월 3일 자원활동가 전체 모임을 통하여 2학기 탁아주체들을 다시한번 정비합니다. 이후에는 각 단대와 과의 확실한 연계로 좀더 친숙하고 바지런한 모습일 것이라 봅니다. 상반기의 성과를 소중하게 계승합시다.

(3) 어깨동무 신문 발간

① 내용의 풍부화와 전문화를 실현합니다.
그간 단편적인 내용이 많았다면, 하반기 어깨동무는 좀더 많은 연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② 시기 : 9월, 10월 2차례 발간합니다.

③ 많은 학우들이 신문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상반기 3차례를 발간하면서 어깨동무라는 이름은 알지만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다는 학우들의 반응을 보면서 평가를 상세하게 내와야 할 것입니다.

⑷ 대중강연, 탁아기금 마련 바자회

① 탁아기금마련 바자회

: 1학기 탁아기금 마련 바자회에 이어 2차로 전개될 이번 바자회는 좀더 많은 내용으로 준비하여, 재정 사업만의 목적이 아닌 현식적으로 대두되는 탁아문제나 여학생회 탁아사업 전개 내용을 학우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93년 한해의 탁아사업을 총화하고, 이후 좀더 지속적이고 완강한 연대사업으로 정착시켜 냅시다.

또한, 간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 바자회와 함께, 단대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사히대의 우리차, 우리밀 저시 판매와 같은 형식으로 하반기 여학생회 사업을 가장 힘차게 전개해 봅시다. 총여학생회-단대 여학생회의 체계적인 고민과 준비로, 단순한 위류팜애가 아니라 전대 여학생회 사업을 육천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종광장을 당찬 여성일꾼들의 함성으로 채워봅시다.

② 대중강연

우리는 엄청난(?)결의로 학우들을 만나가며 대중 사업의 포문을 열어젖힌 제 1차 단군할머니를 모범적으로 치루었습니다. 2학기는 1회 대중교양을 이어 일회적인 사업이 아닌 정기적인 대중사업의 정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차 단군 할머니는, 구성애씨 초청강연(예정)으로 "대학인의 건전한 성인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흥미있고 내용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시기는 탁아기금 마련 바자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여학생 대표님들의 힘있는 열의로, 대중강연을 말 그대로 만 육천 학우대중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성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갑시다.